

## 跛龔生の 周易解釋에 對한 批判(一)

安浩相

本欄去月二十四日付로 六회에 具하여 發表된 跛龔生の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과 生死觀』에 對하여 拙者가 批判한바 잇엇□니 氏는 다시 今月十七日付로 五회에 具하여 『周易思想의 實體意識에 對하여』라는 論文으로 答한 일이 있다. 氏의 學究的 態度의 □□한 答에 對하여 衷心으로 □□과 敬意를 □할 수 없 바이다. 그러나 氏의 今番論文이 其亦 周易思想에 背馳되는 點이 多少 없지 안키에 拙者는 다시 淺見을 무릅쓰고 敢히 再批判을 試하러 하니 氏와 또 讀者 諸賢은 놀러 보아주기 바란다.

氏가 前回 論文에서 周易에 잇어서 形而上者인 理, 道는 物의 用이며, 屬性이오, 形而下者인 器, 物은 道의 體□ 實體라 하엿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氏의 周易 解釋이 非周易的이며 反周易的인 것을 今月 六日付의 本欄에서 批判하게 되엿다. (形而上과 形而下의 本質과 關係를 더 仔細히 研究히 보시려는 분께 周易과 中庸以□에 特히 繫谷全番, 卷十四, 易□□及 同書卷□十, 窮理□ 第四□紹介한다. 그러나 氏는 다시 今番論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하엿다. (그들은(□□ □□을가르킴)易의 在來思想이 唯物論的인 것을 理解치 못하고 그 까닭에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에 對해서는 一言半辭도 容□치 못 하엿다. 그러나 幸히 程子, 朱子 等이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을 唯物的으로 註釋함에 依하여 周易의 在來思想이 얼마만큼 闡明된 것은 特히注意할 만한 일 인줄 믿는다』(一回二段)氏는 다시 『孔子의 形體意識이 完全한 觀念論인 것은 別論코저 하거니와 孔子의 著述이라 하는 繫辭傳의 形上形下論과 歷史觀이 唯物論的인 것은 注意할 만한 事實이다』(二회三단)라고 말하엿다. 여기서 氏가 幸히 『程子, 朱子 等이 周易思想의 形上形下論을 註釋했다 하며 다시 孔子繫辭傳의 形上形下論이 唯物的이라』한 것은 周易과 孔子의 程朱思想에 依據한 것이 아니라 氏의 獨斷的 注意 이라 아니할 수 없다.

形而上者인 □와 道의 思想이 그들의 全思想을 支配하며 形成하고 잇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하필 形上形下論을 唯物論的으로 解釋할理 및 且리오. 氏의 解釋을 보는 儒家로서는 누구든지 大驚 失色이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야 大驚 失色을 하거나, 或은 氣塞卒倒 하거나, 萬一 周易에서와 程朱가 形上形下 兩者를 唯物論的으로 解釋할 일이 있다면 우리 學究者로서는 □焉 할바 아니지만 幸일가? 不幸일가? 孔程朱는 根本부터 兩者를 唯物論的으로 解釋하려는 意圖도 없었을 뿐더러 또 如斯히 解釋한 言語文字조차 發見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跛聾生 自身이 亦是 如斯한 文句를 引用해 明視한 바없으니 그 亦一 大遺憾이다.

氏가 周易思想이 唯物論的인 것을 頑強히 主張하는 그 重要한 理由의 根據는 氏의 論에 依하여 보건대 形上形下論에서 보다 모리혀 氏의 말을 論에 □在 있다 볼 수 있다. 氏는 말하기를 『周易思想이 어찌하여 唯物論的이나 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周易의 發生한 史實이 잘 立證한다. 卽 伏羲時代에 있어서 仰하여 天象 을觀하고 俯하여 地理를 察하여 그를 圖로서 表한 것이 周易의 起源이요. 또 河圖와 洛書에 있어서 五行으로 宇宙 萬象을 公式한 것 일 팔괘 公式의 前提인바 伏羲時代에 있어서 五行으로 宇宙萬象을 公式한 것이 八卦公式의 前提인바 伏羲時代에 있어서 所謂 仰觀俯察한 對象이 天地萬物인 것은 類說할 必要도 없고 또 河圖洛書의 五行이 水火木金土의 五種物인것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그러므로 周易은 觀察의 對象을 物에 두고 또 그 組織의 材料를 物에서 求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方法에 있어서도 物의 容態의 秩序로서 八卦의 公式을 作하였다 그리하여 그 名稱까지 易이라 하였다.(一回三段)